

마음 열기

찬송가 272장을 함께 부르시다.

나는 쉼 때 무엇을 하면서 쉬나요?

말씀 나누기 눅 9장 16-20절,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다”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16-17절).

어린이아가 가져온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보잘것없는 양이었습니 다(16절).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실 때, 남자만 오천명이 먹고 열 두 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 다(17절).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계시면 음식이 없어도, 병에 걸렸어도, 폭풍과 고난이 닥쳐도 능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마음에 무거운 짐과 병든 심령이 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오병이어를 통해 육신의 배고픔까지 채워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서는 쉬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세상에 소망을 두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며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 상한 심령을 채우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 다.

예수님이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십니다(18-20절).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 다(18절). 이에 제자들은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더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19절).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기적을 베푸는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로만 여겼습니 다. 이같이 **외적인 기적만 보고 주님을 따른 자들은 결국 십자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 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 다(20절a).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먹을 것만 주는 분이 아니라, **영을 살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산 소망으로 바로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입술로는 나의 구주라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육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주님을 따르고 있

는지 말입니 다. 세상일이 안 되면 주님을 떠나고, 잘될 때만 기뻐하는 신앙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과 세상 조건에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20절).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20절b).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약시대에 기름 부어 세운 세 가지 직분인 선지자, 제사장, 왕을 의미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 다. 예수님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눈이 열리고 심령이 배부름을 얻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 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제사의 목적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사를 위해서는 흠 없는 제물과 거룩한 제사장이 필요하지만, 이것들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 자신이 친히 흠 없는 제물이자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왕 되신 예수님께서 마귀가 우리를 해치려 할 때 친히 율타리가 되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어 주셔서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 다.

맺음말.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참 선지자이시며,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영원한 제사장이시요,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참된 소망을 두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며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때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 다.

말씀으로 나아가기

말씀의 은혜를 나눕시다.

1. 예수님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나요?
2. 예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체험했던 적이 있나요?
3.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심이 내 삶과 심령 속에서 나타난 적이 있나요?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1.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수단에 소망을 두었던 모습을 회개합시다.
2. 예수님을 생명이 아니라 육신의 만족을 위해 따라갔던 모습을 회개합시다.
3.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시다.

9월 바이블로 가이드 (2) : 느헤미야 & 요엘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며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이번 달 바이블로의 주제는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느헤미야’와 ‘요엘’은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명령과 능력으로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세웁니다. 성벽 재건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 **요엘**: 메뚜기 재앙과 극심한 가뭄으로 황폐해진 땅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며 참된 회개로 돌아갈 것을 외칩니다. 중심을 돌이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메마른 땅을 회복시키시고, 장차 “모든 육체에 나의 영(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번 주 묵상 포인트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으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무너진 신앙생활의 습관과 마음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FAMILY 나눔

2026년 9월 6일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다

누가복음 9장 16-20절

